

「인문교양: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 (4)

주제: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와 한자 교류-한자가 한국 한자문화에 끼친 영향-

제 4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에서는 한국 명지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강윤옥 교수가 강의를 해 주셨다. 강 교수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출토된 유가문헌과 중국 문자를 연구하셨고 국제적인 한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강 교수는 세미나 중에 우선 동아시아 지역의 한·중·일 간에는 과거 역사 문제와 정치 및 사회로 서로 간의 신뢰가 낮고 영토 분쟁이 잦지만, '유가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강 교수가 한·중·일 3 개 국가는 고대 어느 시점부터 한자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는 공통점을 언급하였다. 한자 문화는 최초로 서한 한무제 시기에 이미 조선반도에 전해졌고 출토된 논어 죽간이 이를 증명한다. 중국에서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도 한반도는 여전히 죽간으로 논어를 학습하고 있었다. 그후 한국은 중국의 유가 문화와 본토 문화가 결합하여 독특한 유가 문화를 형성한다. 한국이 유가 문화를 도입한 것은 14 세기였으며 일본은 17 세기부터 유가사상을 추앙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가장 먼저 한자와 유가 문화를 도입한 국가이며 독특한 특색의 유가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보다 한단계 발전시켰다. 14~17 세기경에 한·중·일 삼국은 유가사상에서 각각의 특색을 보인다. 한중 양국은 모두 종묘제도가 있었으나 종묘의 건축양식과 제사용의 제기는 서로 다르게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보류하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문화는 한국전통 문화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1999 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김해 봉황동에서 발굴된《論語·公冶長》의 일부 내용인 4 편의 목간은 아주 중요한 전적(典籍)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발굴된 전적 목간이다. 그 사용 배경이 신라 국학교육기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당시 유가경전의 교육은《論語》와《孝經》이 중심이 되어 학습자들의 필독서로 선정되었고 고대 일본의 학습과목과도 일치한다. 중국의 인쇄술과 과거제도가 조선반도에 도입되고 한자를 통해 유가사상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서기 958 년 고려왕조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되며 유가경전이 주요 시험과목으로 채택된다.

조선시대에는 유가사상은 국교로 공인되며 이 시기에 두 종류의 중요한 국가 문헌이 존재한다. 첫째는 왕조의 공식적인 문헌과 유가 서적의 일종인《朝鮮王朝儀軌》과《國朝五禮儀》이다. 둘째는 조선시대 정부 관리가 중국을 견문하고 쓴《漂海錄》이다. 이러한 전적(典籍)들은 유가제도 사회의 역사유산으로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학, 정치, 경제, 제도, 건축, 복식, 음식 등 그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다양하다.

한국의 한자교육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1948 년 한글전용법을 실시하여 한자를 폐지하고 1951 년 문교부에서 처음으로《常用一千漢字表》를 제정하면서 한자교육이 시작된다. 1972 년 1800 자를 한자 교육용 기초한자표로 제정한다. 1995 년 한자 과목은 선택과목이 되고 90 년대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한자금지령을 없애고 한자 교육 회복을 선언한다. 그 후 한국 교육부는 2015 년에 2018 년부터 초등학교 3 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한자 사용을 병행하기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2018 년 한국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사용정책을 폐지하였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서당과 향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자 과목은 선택과목이며 교육부가 지정한 한자는 900 자이다. 대학 선택과목 혹은 중국어과 전문과정에서 배우는 교육부 지정 한자는 1800 자이다. 일반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자의 방식은 한국어를 주축으로 하고 한자를 보조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신문이나 도서 중에 표음으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해하기 쉬운 지명이나 인명 등에 괄호 표기의 방식으로 한자를 표기하며 한자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인 부분만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취업시장에서 한자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한자 수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며 한자 수준이 우수한 지원자는 최고 5%의 가산점을 준다. 한국 역사 문헌의 대다수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자는 한국문화를 전승해 온 보조도구였고 취업 경쟁 속에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어 한국의 신세대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강 교수는 오늘 강의의 결론을 유가문화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초와 본보기이며 한자는 아시아 국가가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열쇠라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장민자(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